



# 이통 3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

## 순차적 영업정지에도 가입자 뺏기 치열... “거시적 통신 정책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이통통신 3사(SKT, KT, LGU+)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시장안정화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영업정지기간 타사의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사의 이탈 고객을 막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고객사수 마케팅 경쟁= 방통위는 지난 1월7일~30일까지 LGU+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LGU+를 시작으로 SKT(1월31일~2월21일), KT(2월22일~3월13일)의 순으로 실시되는 영업정지기간은 총 66일에 달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번호이동 가입자는 116만3천720명이었다

영업정지로 인한 LGU+의 번호이동자 수는 14만5456명으로 전월 대비 44.8% 감소했다. 같은 기간 SKT는 5만3154명, KT는 8만6852명 가입자가 증가했다.

LGU+는 영업정지에 발맞춰 추가 탐색(해피콜)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결합할인 금액도 1인 3300원에서 5500원으로 늘리는 등 유선서비스 강화책을 마련했지만 이탈 고객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 LGU+ 영업 관계자는 “광주 지역 LTE 가입자가 매달 2만 여명씩 증가하는 상황인 터라 내부적으로도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LGU+는 2월 들어 영업정제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LTE 무

제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낮은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T는 2월 중 멤버십 할인과 캐시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할인 페스티벌 데이’를 진행하는 한편,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기기 변경시 최대 27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착한 기번’ 정책을 선보이며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수비적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통신시장의 2인자 자리를 놓고 LGU+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KT는 최근 업계 최초로 LTE 데이터 이월 요금제”를 정규 요금제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신규-기존 LTE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권과 스키장 리프트권을 제공하는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통신생태계 전반을 손봐야= 하지만 영업정지 정책이 오히려 마케팅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면서 급기야 방통위는 지난 4월 SKT, KT, LGU+의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남구 노대동에 거주하는 장호성(27)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매장에서 SKT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시중에서 90만원에 판매되는 베가레이서 2를 1000원에 구입했다”면서 “같은 기간 한 온라인 매장은 SKT 번호이동 고객에게 미리 개봉한 휴대전화를 보내준다는 광고를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스파크 보조금(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특정 시간 동안 가입자를 모

집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방식)을 포함한 마케팅 과열 현상의 원인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 오래전부터 이통통신 시장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를 함께 담당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화 품질과 요금제 완화 등의 서비스 정책보다 돈이 되는 휴대전화 판매에만 집중하며 발생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제조사, 이동통신 회사와 대리점까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통신시장에서 방통위의 단순한 규제만으로 과다 보조금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통신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손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어른들을 위한 ‘TV동화 빨간자전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애니메이션 제작 화제

매주 월~금 KBS1 방영  
작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쏘울 크리에이티브인믹스 프로듀서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현대인들이 마음의 휴식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V동화 빨간 자전거”는 국내 만화계를 대표하는 원로 만화가 김동화 화백의 ‘빨간 자전거’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KBS1TV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55분에 방영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기획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개별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업체에 대한 지속



## 안드로이드 인터넷 사용량 아이폰 절반도 안돼

24.51% 對 60.56%... 전화·문자만 사용하는 경우 많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3배 이상으로 많이 팔렸지만 인터넷 사용량은 여전히 아이폰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국의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넷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제품 운영체제(OS)별 인터넷 접속량(트래픽) 조사 결과 아이폰·아이패드에 탑재된 iOS의 접속량이 전체의 60.56%를 차지했다.

반면 안드로이드 OS는 전체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24.5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아이폰·아이패드 접속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아이폰·아이패드의 인터넷 접속량 점유율은 늘어난 추세다.

이 업체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집계 따르면 아이폰·아이패드의 접속량 점유율은 2009년에 39.0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0년 42.17%, 2011년에 52.4%, 지난해 61.05%였다.

같은 기간 안드로이드의 접속량 점유율도 2009년 2.59%에서 시작해 2010년 7.35%, 2011년 15.31%, 지난해 21.58%로 늘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아이폰의 3배 이상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 제품을 피쳐폰(일반 휴대전화)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안드로이드 폰을 사고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구입하고 나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만 쓰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트위터는 “이번 공격은 아마추어가 한 것이 아니고 트위터에만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며 “다른 회사나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는 이번 해킹의 영향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계정들의 패스워드를 재설정했다.

해킹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정보는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이다.

## 트위터가 해킹 당했다

25만명 개인정보 유출... 해당 계정 패스워드 재설정

트위터는 지난 2일 이용자 정보를 해킹하기 위해 누군가가 자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으며 이 해커가 이용자 약 25만명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트위터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주에 비정상적인 접근 패턴

을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무단으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려던 것으로 밝혀냈다”며 “조사를 할 당시에도 무단 접근을 시도하는 사체를 발견해 이를 곧바로 차단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와 씨넷 등 외신이 보도했다.

### 스마트폰 100배 즐기기

#### 스팸일까? 아닐까?

스팸문자·전화로 인한 보이스 피싱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앱을 이용해 나에게 걸려온 전화가 스팸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더콜스팸”은 2009년부터 광고 전화, 보이스 피싱 등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온 ‘더콜’이 만든 앱이다. 현재 15만 여개의 스팸 전화가 등록되어 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팝업창을 띄워 스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준다.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스팸번호는 등록 탭에 저장해 쉽게 업데이트 하도록 만든 것도 장점이다.

‘뽀야 이번호’도 이와 비슷하다. 앱을 통해 유저들이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가 뜨면, 자동으로 공유돼 스팸신고 건수가 팝업창으로 뜬다.

아이폰 용 ‘스팸전화DB’는 ‘Missed-call.co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상위 2000여개의 스팸의심번호를 연락처에 자동 저장해 스팸의 심 전화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한교통, 광고효과최고!

임대층 1.25층 각 100평, 52평  
관장업종 병의원약국, 금융기관사무실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빌딩상가전문중개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왕)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가 은 공인중개사

### 무인텔 급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상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렌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들임과 연오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어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